

35. 경계해라! 나는 무엇이 다가오고 무엇이 최선의 준비인지를 이야기 해줬어.

2015.03.31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지금 나는 작은 타협의 길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더 큰 일들에 문을 여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어.

나는 나의 신부들이 기도와 성찬식으로 자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 내가 이말을 하는 것은 상황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강한 유혹들이 풀리고 있고 만약 나의 신부들이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정심으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거야.

지금 기도만큼 중요한 준비는 없어. 나는 너희들이 휴거되었을 때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해. 너희들이 지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의 계획이 시작될 거야. 너가 유혹을 받았을 때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충분해. 나는 너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정말 자랑스러워.

(클레어) 저는 먹을것을 쇼핑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해 저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억제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 그것은 너의 안에 거하는 나의 영이야. 아마도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너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과 달콤한 편지를 남기는 것이야. 나는 너에게 다가올 일을 말했고 가장 최선의 준비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야. 나와 소통하고, 나의 현실에 흠뻑 젖고, 나의 필요함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육체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내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하는 것을 너는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어. 내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야.

실질적인 일상문제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혹은 압도적일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늠하고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오랫동안 머물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너희들은 영을 선택할 수 있어. 너희들의 휴거를 위한 가장 최선의 준비는 영적인 것이며, 이것은 심지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야.